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7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5일 (음력 2월 20일) 목요일

## 무안공항 최초 유럽 전세기 하늘길 열린다

### 전남도, 러시아 야쿠티아 항공과 협약 체결...관광활성화 청신호

###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역사탐방...6월16일~10월30일까지 취항

무안공항 개항 이후 최초로 유럽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려 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번 유럽항로 개설은 노선의 다양화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신규노선 개발을 위해 러시아 야쿠티아 항공사와 꾸준한 노력 끝에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무안공항~러시아를 오가는 전세기를 띄우게 됐다.

전남도와 야쿠티아 항공사가 오는 6월 16일부터 10월30일까지 전세기를 취항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전세기는 1항차 블라디보스톡과 2항차 하비롭스크를 교차하는 패턴으로 취항하는 특징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요일(3박4일)과 토요일(4박5일) 패턴으로 출발하는 이번 관광은 고려인들의 강제이주역인 우수리스크역에서 출발, 하루 8시간 동안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

용하게 되며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했던 지역과 고통스러웠던 고려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역사 탐방이다.

또한 옛 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되었던 고려인들의 급박하고 안타까웠던 삶의 현장 일본 참략에 의해 발생한 참변 등 고려인의 이품과 한이 서린 지역 등도 방문하게 되는 특별 기획된 관광이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그동안



안 무안공항은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에 치중해 왔으나 이번 러시아 취항을 계기로 미주노선과 유럽노선으로 항로를 꾸준히 넓혀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항로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가운데 세계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윤장현 광주시장 불출마 선언...재선 뜻 접어

윤장현 광주시장이 4일 6·13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29일 재선도전을 선언한 지 1주일 만이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13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시민 시장으로서 부여받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 민선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시민의 부름을 받아 책임의 길을 걸었던 지난 4년이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가치있는 삶이었다"며 "민선6기의 주요 정책들이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것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되는 일보다 시장이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했다"며 "상생을 위한 대화와 연대가 가능한 광주의 기반을 마련했고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융합산업 등을 동력으로 삼아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다"고

### "시민시장 민선6기 책임·역할 다할 것" 민주당 경선구도 재편...3자 대결 전망

의미를 부여했다.

또 민선 6기의 의미있는 변화들은 민선 7기에 활짝 꽃 피고 귀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광주정신의 계승과 함께 올바른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



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다른 예비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광주정신 계승이나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반응이 뜨겁다.

윤 시장은 의사 출신으로 시민운동가와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의 대부'로 불렸다.

지난 2014년 안철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광주책임자로 활동하다, 6월 지방선거에 전라공천패 시민시장으로 당선됐다.

이날 윤 시장의 불출마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다시한번 요동치고 있다.

강기정·민행배·최영호 예비후보가 이날 강기정 후보를 단일후보를 결정함에 따라 기존 7명이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강기정·양항자·이병훈·이용섭 4명으로 재편됐다.

또 5일께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경선 예비후보(컷오프 통과자) 명단을 발표하면 경선구도는 3자 대결구도가 될 전망이다.

서은홍 기자



### 올드보이2

전여옥 전 의원은 2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자유한국당 인물에 대해 '계륵리스트'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유한국당이란 보수지지층에는 말 그대로 계륵 같은 존재다. 막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버티자니 그런 닭의 갈비뼈'라며 '자유한국당이 0원 차지를 앞둔 무서운 자기혁신을 해야 하는데, 유권자에게 앓음을 생각해 살 하나 없는 닭 갈비뼈를 드시라고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 의원은 '이번에 나온 계륵리스트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경남지사 후보 김태호 그리고 충남지사 후보 이인제 스스로 밝힌 대로 올드보이들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계륵당 자유한국당은 유권자들이 고민하지 않고 폐기처분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스1



전여옥



이인제



전여옥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란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란 사회적 함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  
GWANGJU CITY